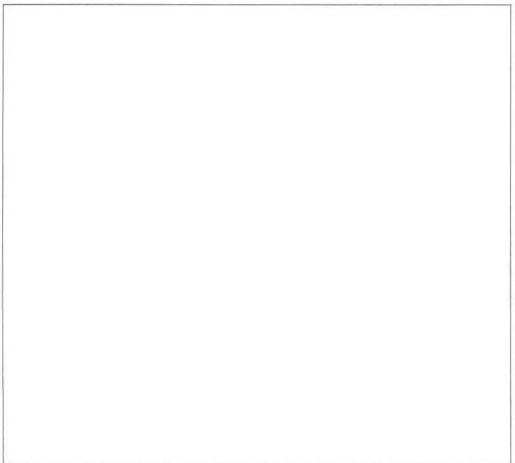


언론이 주목한 이달의 책

미국과 국가와 식민지,
그리고
미실의 성^性적 테러에 시선

파편화된 '마을과 두레'
음식 너머 역사의 허구에 흥미



개인과 나라를 아우른 공동체적 가치의 평가와 대비는 늘 첨예한 지적 소재다. 이를 반증하듯, 미국, 식민지, 지식인, 영웅, 국가 따위의 의제가 이 즈음 주요 언론의 서평난과 문화면을 빈번하게 장식했다.

역사는 승자의 점유물인가? 〈한국일보〉와 〈세계일보〉 등 각 신문들은 지난달 중순 '승리의 역사' 이면에 감춰진 승자의 거짓말을, 미국을 무대로 실증해보인 《미국의 거짓말》에 관심을 보이며 이런 물음을 던졌다. 〈한국일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유적의 해설은 상당 부분 지배자의 주관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저자인 제임스 로웬에 대해 "드넓은 미국을 무대로 이런 '깍뎂기'를 벗겨보려는 용기 있고 엄청난 시도를 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신문은 인종차별을 대표적인 '깍뎂기'로 들며 "기념물을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모두 백인이었기 때문에 인디언과 흑인은 어느 곳의 동상에서나 항상 백인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로만 그려진다"고 본문을 소개했다.

〈세계일보〉는 특히 미국이 "독일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사적으로 보존하라고 요구하고, 러시아에는 레닌그라드가 잘못된 정치철학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준 인물의 이름을 딴 만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고치라고 주장" 했음을 들어 미국의 이중 인격적 모습을 꼬집었다.

'거짓말'이 배제된 모습 그대로 미국을 드러낸 책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서평자들이 균형적 시각으로 '미국'을 다룬 서물로 평가한 책이다. "미국 건국 이후 이라크 침공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의 역사를 가능한 한 실증적으로 조명하려고 한 책으로서, 미국사를 총체적으로 읽고 싶은 독자들을 겨냥했다" (〈조선일보〉)거나,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부터 시작해 2001년 9·11테러가 미국사회에 가져다준 변화상까지 포괄하고 있는 책" (〈문화일보〉)이라는 등 긍정적 묘사 일색이었다. 〈서울신문〉 역시 "오늘날 세계는 극심한 변화의 가운데 있으며,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80,90년대의 '반미와 친미'라는 2분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세계 속에서 미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일독을 권했다.

거짓말이 배제된 모습 그대로 미국을 드러낸 책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서평자들이 균형적 시각으로 미국을 다룬 서물로 평가한 책이다.

21세기 팍스아메리카나의 모먼트에 주목한 후랜시스 후쿠야마의 《강한 국가의 조건》은 저자의 행보와 책의 성격에 대해 신문마다 해석이 달라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저자는 국제사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약한 국가에 적극 개입해 강한 정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고 보았다. 다만 "미국에 의해 해당국가의 위협이 사실보다 과장될 경우 미국이 행하는 예방차원의 전쟁이 국제질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고 첨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치중립적 저술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후쿠야마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오늘 의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된 '실패한 국가'들에 '강한 국가'를 이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리곤 "실패한 국가란 국민들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나라들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보스니아 등 발칸 반도의 분쟁 지역,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이라고 지적"했음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문화일보>는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이 책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네오콘으로 분류된다"고 못박으며, "국가 내부 역량으로 강한 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사회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한 국가 건설에 개입할 근거가 있는가가 책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때 네오콘을 공박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쿠야마 주장의 실체도 전쟁을 옹호하되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것 정도"라며 "이 책을 두고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한 미국의 주요 서평지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서평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고 미묘한 시각을 보였다.

반공과 친일은 천적인가. <한겨레>는 책 <식민지의 적자들>의 서평을 통해 "이순신 소설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해 이 책에서 저자가 공력을 쏟는 것은 친일과 반공이 한 뿌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겨레>는 또 "이순신을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이면에는 음험한 정치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광수와 <동아일보>, 이은상과 박정희와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친일 행적과 정권의 비합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웅 이순신'을 동원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김훈의 <칼의 노래>에도 비판의 칼날이 겨워졌다.

"<칼의 노래>를 논하는 이들은 그 작품의 문체미학이나 허무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서도 그 배면에 감추어진 권력지향성에는 눈을 감는 것 같다"는 저자의 말을 인용하는 한편, "다수 민중과 여성을 타자화하고 소외시킨 점에서 김훈의 이순신은 이광수의 이순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원로 작가 송기숙의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역시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 고루 지면을 할애한 책이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뒤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마을 공동체인 '두레'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레 정신이 반일·민족주의로 이어지는 걸 경계했던 것이죠. 이어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이 두레를 또다시 파괴했습니다" 지은이는 <국민일보>에서 것처럼 파편화된 '두레'와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한국일보>도 "두레와 농악, 정자나무와 주막과 장, 잔칫날 같았던 모

심는 날의 풍경과 일제의 두레정신 말살정책 등의 대비"로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며, "일제하 소작쟁의와 민중적 변혁에너지의 변형으로 나타난 신흥종교, 민중의 해방구로서의 섬과 섬의 숲한 발생설화와 진도아리랑의 분방한 가락이 품고 있는 의미"에 주목했다.

<악마의 정원에서> 역시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한 화제작이다. <서울신문>은 "기독교 원리주의가 어떻게 음식문화에 스며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으로 이를 정의했다.

신문은 "드러나는 갖가지 음식 이야기들은 흥미진진하다"면서도 "'최후의 만찬'에 대한 색다른 해석, 영국 빅토리아 시대 '아동의 탄생'과 맞물린 음식문화의 변화, 프랑스혁명을 전후해 벌어진 밀과 보리를 얼마나 섞어 빵을 만들 것인가 하는 논쟁 등, 글을 읽다 보면 진보를 향해 목적론적으로 구성된 역사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험한지도 덩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색다른 분석을 가했다. 한편으론

"서구의 압도적인 영향력 덕분에 '이슬람 원리주의'는 두려워하면서 정작 '기독교 원리주의'는 잘 모르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다소 산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요즘 우리가 즐겨먹는 평범한 음식들에 숨겨진 비범한 과거를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다. 특히 "음식 역사를 주제로 글쓰기를 하는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유럽 인도 호주 등을 여행하며 축적한 문화적 체험과 일식 초밥집 경험을 버무려 음식의 금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욕망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맛깔나게 풀어냈다"고 높이 샀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경험과 자료를 엮어 다양한 내용을 딱딱하지 않게 풀어나가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반론의 여지가 있는 개인적 견해가 여과없이 들어가 있고, 방만한 사례를 끌어모으다 보니 글의 흐름이 산만해서, 음식과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일제가 조

선을 침략한 뒤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마을 공동체인 '두레'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레 정신이 반일·민족주의로 이어지는 걸 경계했던 것이죠. 이어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이 두레를 또다시 파괴했습니다

◎ 이달의 주요 서평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별아의 장편 《미실》은 1억원의 고료에 값 할 만큼 신문마다 현란한 평이 이어졌다. 〈한겨레〉가 소개하듯, “주인공 미실은 삼국시대 신라 전성기의 진흥, 진지, 진평제 등 3대에 걸친 임금들과 화랑 사다함 등 당대의 영웅호걸들을 미색으로 녹여내고 끝내는 스스로 최고 권력을 획득한 여걸”이다.

〈한겨레〉는 “불충분한 사료에 흠여져 있는 고대의 사실史實과 직제 등의 고증에 쏟은 작가의 공력에, 1500년을 거슬러오른 옛 이야기를 읽기란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다”면서도 “덩저리, 두수없다, 맏맏하다, 미추롬하다, 사로자다, 일쩍다 같은 아름다운 토속어들, 그리고 ‘미실의 혀는 목구멍 언저리까지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가 사다함이 생애에서 느끼는 모든 공포, 값없이 내뿜은 거짓말, 속절없는 회의, 쓰라린 비탄까지 날날이 더듬었다’ 와 같은 향기 있는 문장들은 독자의 수고에 충분히 값한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책에서 시도한 미실의 캐릭터는 모성과 욕망을 함께 가진 조화된 존재였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는 평을 듣는다”며 “욕망에 솔직하면서도 자유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바로 미실”이라고 색다른 해석을 가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여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이후 남성이 빚어낸 산물이란 관점으로 보면, 미실의 행각을 이해하는 데 걸려들 장애물을 쳐낼 수 있다”며 “그렇다고 ‘미실’을 페미니스트 소설로 틀 지운다면 또한 작품에 숨어 있는 많은 보물을 놓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현대의 ‘성sex과 gender의 중층적 고려들을 겨냥한 미실의 테러를 마주하는 일은, 그래서 짜릿하고 저릿한 것”이라며 이 소설의 의미를 간결하게 묘사했다. ☞

〈출판저널〉 편집부

《동물과의 대화》

작가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생존을 삶으로 바꿔놓는다. 인간의 눈에는 기계적 행동이나 해부학적 구조로만 보이는 동물들의 의사소통체계는 의외로 역동적이며 신호와 의미도 계속 진화한다. 단지 생존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놀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신호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거짓말쟁이, 연인, 그리고 영웅》

인지과학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스티븐 퀴츠는 책에서 자신의 스승과 함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주장을 펼쳐 보인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과 능력은 유전에 의한 것도, 양육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물학과 문화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

《공포의 문화》

저자는 미국사회가 근거 없는 공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런 현상의 배후에 공포마케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정치인, 이익단체, 미디어라는 3대 공포행상인들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과장된 공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그러한 공포에 대해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편지》

역사책이 아닌 에세이답게 그저 르네상스 회화가 좋아서 무작정 이탈리아로 떠난 작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글이다. ‘이탈리아식 운전술’ ‘매혹의 카프리’ ‘시칠리아의 아이스크림’을 보면 낯설고 신기한 이국 풍경 사이에서 아이스크림을 훌쩍거리며 씹싸하게 나아가는 동양인 처녀의 모습이 생생하다. 고대 로마부터 콘스탄티노플, 근대 베네치아, 현대 일본과 미국까지 종횡무진 산책하는 젊은 시오노 나나미의 발걸음은 30년이 지난 오늘날 보아도 여전히 유려하고 관능적이다.

〈경향신문〉

《김병종의 화첩기행3 : 고향을 어찌 잊으리》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역마직성驛馬直星이란 병에 걸린 지은이는 안식년(그는 서울대 미대 교수다)을 얻어 1년간 종횡무진 떠돌았다. 그가 이국에서 만난 예술혼의 주인공들은 ‘만인의 연인’으로 각인된 전혜린, 중국 영화사의 별이 된 김영, 대지를 적시는 자유와 저항의 노래를 부른 빅토르 최 등 14명. 지은이는 지금까지 나온 ‘화첩기행’ 중 이번 해외편을 가장 힘들게 썼다고 했다. 추측컨대 이는 여독의 피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조국을 그리며 스러져간 예혼의 아픔을 함께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서울신문〉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란 이름은 몰라도 〈말팔랑이 삐삐〉라는 영화는 안다. 그 삐삐 때문에 원작자인 스웨덴 동화작가 린드그렌에게 폭 빠지게 된 저자가 린드그렌의 작품들과, 막 10대에 접어든 한 소녀의 고민과 갈등을 접목해 이채로운 동화를 만들었다. ‘행복한 책 읽기’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동화. 연필과 따뜻한 색깔의 물감으로 그려낸 삽화도 예뻐다.

〈조선일보〉